

‘광주형 일자리’ 급물살... 현대차 투자 협상안 전격 합의

(시·노동계)

현대차 요구사항 종합해 수정보완
민주노총·노조 반발 등 과제로 남아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협상과 관련, 지역 노동계와 합작법인 대주주인 광주시가 최종 협상안에 합의했다.

노동계가 노조 패싱과 불통 행정 등을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43일 만, 첫 원탁회의가 열린 지 6일 만이다.

현대차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기로 첫 단추를 다시 꿰 것으로 집권 여당의 전폭적 지지까지 얻은 상황이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협상과 법률 검토, 현대차 실적 부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오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3차례에 걸친 원탁회의를 끝으로 7인 원탁회의를 종료하고 원탁회의에서 도출한 광주시와 노동계 간 조정합의문을 토대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협상 관련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 (왼쪽부터) /뉴스

이날 회견장에는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기곤 기아차 전지회장, 자동차산업·노사 관계 전문가인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백승철 어고노믹스 대표 등이 배석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원탁회의에서 초기에 마련한 협약서와 이후 현대차 요

구사항 등을 종합해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12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월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기본토대로 올해 3월 체결된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을 부분 반영해 이뤄졌다.

투자유치 체계 구성과 향후 발전 방안, 경영수지 분석, 부품업체 노사 의견 반영 등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광주시는 제2

차 원탁회의에서 전문가 등이 제안했던 (가칭)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건의와 노정간의 상시 대화기구인 (가칭) 노정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한 원탁회의는 산파역할을 마치고 이날부로 해산되고,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의 대화채널은 투자유치추진단으로 공식 전환되게 됐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원탁회의 의장인 박전 부시장이 빠지는 대신 나머지 6명에 시민대표로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공익전문가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류전철 교수가 새로 참여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성공적 투자유치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서 역할을 하되 현대차와의 협상을 직접 담당할 협상팀의 구성과 협의는 대주주인 광주시가 맡기로 했다. 추진단의 첫 회의는 2일 있을 예정이고, 현대차와의 최종 협상은 이후 곧바로 진행될 계획이다.

박병규 원탁회의 의장은 “마라톤 협상 등을 통해 현대차와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대차와의 투자자 간 합의, 큰 틀의 노사정 대화협은 조만간 이

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빠르면 다음주에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원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시와 노동계 간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지속가능한 사업 협약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주발전을 위한 대응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세부 조건이나 법률적 검토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투자 실현을 위한 첫 고비인 노정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 수준과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대한 합의와 합작법인 설립과 투자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 현대차의 실적 저조 등은 종착역인 노사민정 대화협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장흥흑우’가 명품 한우시장 이끈다

장성군 “장성호, 사계절 복합 휴양단지로”

장흥흑우 시식회 열고 발전방안 모색
시장개척... 新먹거리·소득 향상 기대

강수육장·계류장 등 조성사업 추진
군수 “천혜의 조건 갖춘 소중한 자원”



이르면 오는 2020년 장흥 토요시장에서 ‘장흥흑우’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장흥군은 지난 10월 31일 군청 회의실과 토요시장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장흥흑우 시식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시식행사를 통해 장흥흑우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식회에 앞서 ET바이오텍 정연길 박사는 국내 한우산업의 현황과 흑우 생산과정 및 도축성적에 대해 설명했다.

전세계에서 기르고 있는 소는 250여 품종에 달하며,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는 황우, 흰소, 흑우가 있으며 연구 결과, 국내

한우 품종 3가지는 뿌리가 같아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새로운 우량 품종 개발의 소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장흥흑우는 흰소와 한우의 교잡을 통해 생산된 고급육 실용축(F1)이며, 단면적, 지방 두께, 지육의 중량이 한우보다 우수하며, 한우보다 큰 체형의 유전자를 90% 이상 보유한다.

장흥군은 흑우 브랜드 개발로 명품 장흥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고, 흑우 전문매장을 개설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흑우 시장 개척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유두석 장성군수가 최근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 최규성 사장에게 장성호 개발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 측의 협조를 구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장성호’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장성호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공사 측의 양해 없이는 장성호 개발계획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군수는 최 사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장성호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적극 어필하며 기존 장성호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장성호 하류 구간에 강수육을 즐길 수 있는 강수육장과 수상레저스포츠를 위한 계류장,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장성호 개발을 주제로한 사업을 공모해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유 군수는 강수육장과 계류장, 수변공원, 기타 편의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설 곳으로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장성댐 하류 부지를 낙점하고, 이날 농어촌공사 측에 체육시설과 유희지로 남아 있는 9만 4000여 평방미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자 유치를 통해 쥘트랙 등을 체험하는 레저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구체화될 경우 레저사업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또한 지난 6월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는 장성호 수변길을 전국 최고의 트레킹길로 만드는 가칭 ‘장성호 수변 백리길’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현재 수변길은 임도와 나무데크길로 7.5km가 이어져 있고 출렁다리 1개가 조성된 상태다. 장성

군은 일부 구간에만 설치된 수변길을 총 34km로 늘려 백리길로 만들고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2개 더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가 우선 되어 함에 따라, 유 군수는 빠른 시일 내에 백리길 조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 측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는 장성호가 갖고 있는 잠재력 가치가 핵심 관광자원으로 키워지는 데에 공감하며,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의 개발구상에 협조 의사를 보여준 농어촌공사에 감사하다”며 “장성호는 사계절 체류형 복합휴양단지가 되기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소중한 자원으로 앞으로 양 측이 소통을 늘리며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분실공고〉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 이태훈 차장
 계약서 분실공고
 계약번호: PKA 028280
 PKA 028906

오늘의 날씨
 11월 2일 (금)
 음력: 9월 25일
 수도권 날씨: 4~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58 | 해질 / 17:33

연천 -1/16, 동두천 0/18, 가평 -2/18, 파주 -1/17, 서울 4/17, 양평 0/18, 수원 3/17, 용인 3/17, 평택 1/18, 백령도 10/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업체모집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고양허브)가 방송영상 미디어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가상오피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업체모집에 나섰다. 고양허브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설립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방송영상·미

어콘텐츠 융합 창업지원센터로 오는 12월 고양시 장항동 소재 M-City에 개관해 스타트업 지원 및 방송영상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획, 교육과 컨설팅, 실습 제작을 위한 최신 시설과 1인 미디어에 특화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입주기업 모집은 총 40개사로, 사무공간 10개, 가상오피스 30개 내외다.

사무공간은 4인실 6개, 5-6인실 4개이며,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는 독립형 사무실이다. 사용료는 6개월 기준 4인실 60만원, 6인실 90만원 원이고, 별도 관리비는 없다.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의 기업(법인/개인) 및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상오피스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와 지정 우편함 및 사무를 볼 수 있는 오픈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료는 무료다. /경기 고양=김승열 기자 kimsy@